

심리적 통합 방해요소로서의 레드 콤플렉스

개념정의와 실증적 분석

한민 · 배준성(고려대학교 심리학과)

1. 서론

차재호(2000)는 남북한의 통일을 사회경제적 통합과 심리적 통합 (psychological integration)으로 나누어서 설명한 바 있다. 사회경제적 통합이란 국가체제나 제반 제도, 화폐단위 및 경제체제에 대한 통합을 의미하며, 심리적 통합은 남북한의 사람들이 같은 정체, 경제체제를 공유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 나라의 국민’이라고 느끼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심리적 통합은 다시 개인적 차원의 통합과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통합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북한의 심리적 통합에 관한 연구들은 개인적 차원의 통합, 즉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이나 통일 이후 예상되는 북한 주민들의 부적응 등의 주제에만 제한되어 왔고, 분단기간 동안 심화되어 온 사회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심리적 괴리감을 해결하는 사회문

회적 통합에 관한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종한(2004)이 공동체의식을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통합의 가능성을 논의하였을 뿐, 그 과정을 실증하는 후속 연구나 같은 관점에서 또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는 연구는 거의 진행된 바 없다.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심리적 통합을 논하는 데는 두 가지의 시각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심리적 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되는 것들을 연구하여, 그것들을 조장,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통합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되는 것들을 연구하여, 궁극적으로 그러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심리적 통합을 돕는 것이다. 그러나 막연한 낙관주의에 기대 남북의 동질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지난 50여 년 동안 진행된 남북의 이질화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채정민·이종한, 2004)는 인식에 동의한다면, 전자보다는 후자의 시각을 택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라 생각된다. 통일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정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종한·김명자·채정민·이영이, 2004). 그러나 통일의 과정에서 남과 북의 심리적 통합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진정한 통일의 길은 요원할 것이다. 본 연구는 통일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심리적 통합의 저해요소의 개념화에 관한 것이다.

남한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 상당히 복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북한은 적이면서 한 민족이고, 북한의 정권은 타도해야 할 대상이면서 협력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북한 주민들 역시 꺾박받는 동포이지만 한편으로는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란 생각도 공존한다. 한민·이지나·황태호·채정민(2005)은 남한 사람들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적이미지와 동포이미지가 공존하며, 이러한 이중적 이미지가 통일에 대한 제반 인식과 북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등에 영향

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통일과 북한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을 지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같은 사람 내에서도 두 가지 상이한 태도가 공존한다는 것을 뜻한다.¹⁾ 이와 같은 개인 내적인 불일치는 북한 사람들뿐 아니라 북한 혹은 공산주의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에도 영향을 미친다.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이들은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기도 하며 ‘망해가는’ 북한에 물자를 ‘피주어’ 통일을 지연시키는 세력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여러 장면에서 북한에 대한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의견들은 충돌을 빚고 있다. 북한관련 사안에서의 이 같은 충돌들은 현재 한국사회에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통일의 과정에서 심리적 통합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남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북한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 태도의 기저에는 남한의 지난 역사 동안 획득되고 내재화된 레드 콤플렉스²⁾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레드 콤플렉스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① 레드 콤플렉스에 대한 문헌자료들을 분석하여 그 특질들을 추출하고, ② 일반인들에 대한 질적인 자료 수집을 통하여 레드 콤플렉스의 발현

1) 한민·이지나·황태호·채정민(2005)의 연구에서는, 동포이미지가 강하고 적이미지가 낮은 집단, 적이미지가 강하고 동포이미지가 낮은 집단 외에도, 동포이미지와 적이미지를 동시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및 동포이미지와 적이미지가 둘 다 낮은 집단이 분류되었다. 즉 동포이미지와 적이미지는 단일 차원이 아니라 별개의 두 차원으로 존재한다.

2) 레드 콤플렉스란 일정 정도 특정한 정치색을 담고 있는 용어이지만, 본 연구가 개념화하고자 하는 레드 콤플렉스는 정치적인 시각으로부터 중립적인 것으로, 단순한 이념적 성향이 아니라 남북의 심리적 통합의 맥락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순적 정서와 행위양식을 포함하는 심리학적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레드 콤플렉스를 대체할 만한 적당한 용어를 찾지 못하여 잠정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양상을 살펴본 뒤, ①과 ②의 결과를 바탕으로 레드 콤플렉스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레드 콤플렉스

레드 콤플렉스란 적색공포라고도 하며, 공산주의에 대한 과민적인 반응을 일컫는 말이다. 한국사회에서 북한에 관련한 중요한 사안 및 정치 일반에까지 확대되어 나타나는 논쟁거리는 바로 ‘사상검증’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역사에서 겪었던 전쟁의 참혹함과 그와 관련된 공산주의와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과 정서의 복합체를 우리는 레드 콤플렉스라 칭한다. 레드 콤플렉스는 처음에 적색혐오증(이장호, 1992), 혹은 적색공포 등으로 불리다가 강준만(1997) 이후로 레드 콤플렉스라는 용어로 굳어지게 된다.

심리학에서 레드 콤플렉스를 언급한 최초의 연구자는 이장호이다. 그는 적색혐오(red complex)를 심리적 외상에서 비롯되어 발전한 정서적 복합이라 정의³⁾했으며, 과도하게 일반화될 경우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오수성(1995)은 적색공포(red complex)는 한국인들의 정신구조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반공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의 경험들과 관련하여 발현되는 형태라고 보았으며,⁴⁾ 정신질환자들의 망상 분석, 교과서 분석, 일반인들의 경험 분석

3) 이장호, “남북통일의 문화 심리적 장애요인,”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학술세미나 논문집』(1992), 128쪽.

4) 오수성, 『적색공포의 본질과 심리적 작용.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5), 86쪽.

등을 통하여 레드 콤플렉스가 한국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왔으며 사람들의 마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연구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은, 레드 콤플렉스가 인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들의 복합체라는 점이다. 전쟁과 공산당에 대한 기억(인지)은 당연히 당시의 공포와 두려움, 증오 등(정서)과 연합되어 남아 있다. 전쟁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전쟁경험 세대의 전승과 반공교육 등의 영향 때문에, 남한 사람들의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한 인지체계에는 전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일반화된 증오와 같은 감정들이 복합되어 있다.

그러나 ‘레드 콤플렉스’가 단지 인지와 정서의 복합체를 의미한다고만 볼 수는 없다. 그것은 ‘적색혐오’나 ‘적색공포’라는 말로는 모두 담을 수 없는 복잡다단한 사회병리적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강준만(1997)은 레드 콤플렉스를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한 과장되고 왜곡된 공포심과 그 공포심을 근거로 한 무자비한 인권 탄압을 정당화하거나 용인하는 사회적 심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고, 그 뒤로는 유사한 개념들을 통칭하여 레드 콤플렉스로 지칭하고 있다. 즉, 레드 콤플렉스란 인지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에 덧붙여, 행동화의 측면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전쟁과 공산주의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 및 지식(인지)과 그들에 대한 공포와 증오심(정서)에 더해,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것을 용인하고, 혹은 자신도 그러한 피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행위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행동화와 관련된 레드 콤플렉스의 복잡다단한 일면을 권혁범(1998)

5) 강준만 외, 『레드 콤플렉스』(서울: 삼인, 1997), 7쪽.

의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다. 권혁범은 한국의 반공주의는 공산주의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논리와 정서를 의미하며, 그중에서도 북한공산주의 체제 및 정권을 절대적인 ‘악’과 위협으로 규정, 그것의 철저한 제거 혹은 붕괴를 전제하고 아울러 남한 내부의 좌파적 경향에 대한 적대적 억압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다.⁶⁾ 이렇듯,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이념(인지적 측면)이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일정한 제약(행동화)을 암시하는 한국 반공주의의 모순적 성격이 바로 레드 콤플렉스의 한 속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적대적 억압이 과거 특정 정권의 이해와 맞물리면서 그로 인해 무고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공산주의자 혹은 북한과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잡혀 들어가서 고초를 받는 희생자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자신에게도 그 같은 피해가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러한 이유로 고초를 겪는 이들에 대해 묵인하고, 자신의 사상과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야만 했다. 6·25 이후, 사회, 역사적 사건들을 겪으면서 북한과 전쟁, 공산주의에 대한 인지와 정서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내재화되고 행동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레드 콤플렉스란 인지와 정서 그리고 행동적 측면을 포괄하는 복합적 개념이다.

1) 문헌분석: 레드 콤플렉스의 특성

오수성(1995, 2001)의 연구를 제외하면 레드 콤플렉스에 대한 연구는 정치학에서 일부 수행되었을 뿐(정해구, 1997), 학문적인 주제로 구체화되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수행된 소수의

6) 권혁범, “반공주의의 회로관 읽기”, 『통일연구』, 제2권 2호(1998), 11쪽.

연구들도 레드 콤플렉스가 구성되어 온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레드 콤플렉스가 미쳤다고 생각되는 영향 등을 언급하거나, 연구자의 통찰이나 문헌분석 등에 의존한 방법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 실증 가능한 방법으로 레드 콤플렉스의 심리적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시도는 없었다. 이는 일차적으로 레드 콤플렉스가 과거 한국의 정치상황 등과 맞물려 논의 자체가 금기시되어 온 사실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레드 콤플렉스는 전쟁공포 및 안보의 두려움과 관련된 한국인들의 심리를 자극할 만한 사건과 맞물려 악용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레드 콤플렉스에 대한 선부론 논의는 곧 연구자들에 대한 사상검증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었다.

또한 레드 콤플렉스가 주로 정치학이나 언론 등에서 다루어졌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나 북한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정치적 반응 등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레드 콤플렉스가 논의되었기 때문에, 레드 콤플렉스를 한국인들이 가진 실제의 심리체로 보고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극히 드물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레드 콤플렉스가 실제로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자리하면서 작용하는 실체라는 전제하에, 그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추출한 레드 콤플렉스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반공이데올로기

오수성(1995)은 한국인들의 정신구조 속에 잠재되어 있는 반공이데올로기가 유형을 달리하여 나타나는 것이 레드 콤플렉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레드 콤플렉스를 단순히 반공이데올로기의 발현이 아니라 보다 복합적인 심리들의 연합이라 생각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

1990년대 이후의 한국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공이데올로기의 의미는 점차 쇠퇴하고 있다.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와 남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의 확대로 한국사회에서 반공이데올로기의 영역은 매우 축소되었으며 그것은 더 이상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레드 콤플렉스의 영향이라 해석될 수 있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⁷⁾ 반공이데올로기만으로 레드 콤플렉스의 여러 단면들을 모두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쟁공포 및 안보에 대한 두려움

직접적으로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로부터, 간접적으로는 전쟁에 대한 공포를 권력유지의 도구로 사용해 온 지난 군사정권들로부터 이어 받은 전쟁에 대한 공포는 레드 콤플렉스를 구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이다. 전쟁은 6·25 이후 지금까지 이루어온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 이미 한 번의 전쟁을 경험한 이들에게 그것은 엄청난 두려움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확대, 왜곡되기 쉽다. 전쟁에 대한 확대, 왜곡된 두려움은 북한과 안보저해 세력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어진다.

(3) 북한 및 '이적단체'에 대한 적개심

레드 콤플렉스의 또 다른 요소로는 북한(정권 혹은 북한 자체) 및 남한의 '이적단체'에 대한 적개심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적개심은 전쟁공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과거의 정권들은 자신들의 권력에

7) 진중권, 『빨간 바이러스』(서울: 아웃사이드, 2004)

저항하는 이들에게 ‘이적단체’ 혹은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해 왔다. 이 방식은 사람들의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교묘히 이용해 왔다. 사람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고, 북한에 대한 적개심은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세력이나 단체에 대한 적개심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반공이데올로기와 마찬가지로 전쟁공포나 적개심 등 정서적인 측면만으로는 레드 콤플렉스의 실체를 파악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4) 내재화된 자기검열

레드 콤플렉스를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내면적이고 심층적인 것이 바로 내재화된 자기검열이다. 즉, 내재화되고 행동화되어 대북정책 및 심리적 통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레드 콤플렉스의 행동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전쟁 및 그 이후의 기간 동안, 지배권력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사상과 친북, 친공산주의의 누명 아래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었다. 나는 반공주의자라는 ‘자기해명’은 모든 것에 대한 하나의 면죄부요, 특허장이요, 만능열쇠였고, 너는 빨갱이라는 낙인은 테러와 고문, 연좌제, 구속수감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이였다(김동춘, 1992). 오수성(1995)은 ‘고해성사’라는 용어를, 도방주(2003)는 ‘자기검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그것이 뜻하는 바는 동일하다. ‘자기검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도방주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과거 지배권력의 권력유지 도구로 사용된 ‘빨갱이’의 낙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고, 그러한 피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 공산주의 등에 대한 자기검열을 내재화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⁸⁾ 내재화된 자기검열은 언제 자신에게 닥칠지 모르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타인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에 관여하지 않거나 오히려 탄압에 동조하는 행동(혹은 의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시 정리하자면, 레드 콤플렉스는 크게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의 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직접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해 이어진 기억과 정서의 연합이며, 우리의 지난 역사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내면화되어 행동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심리적 복합체이다.

3. 레드 콤플렉스의 개념화

1) 레드 콤플렉스의 발현형태 파악: 질적 접근

기존의 연구에서 추출한 내용과 함께, 일반 사람들이 실제로 북한과 공산주의, 대북정책 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레드 콤플렉스의 구체적인 발현 형태를 보다 명확히 추출해 내기 위해 개방형 질문지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주로 서울에 거주하는 17명의 일반인(남 7, 여 10)들이었으며, 평균연령은 48.9세였다. 조사대상의 표집은 근거이론 연구에서 일반화된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⁹⁾에 따랐다.

8) 도방주, “6·15 남북, 북남 공동성명 이후 자기검열에 대한 신학적 연구”(성공회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0쪽.

9) 이론적 표집이란 양적 연구의 무선적 확률표집과는 달리 연구자가 스스로 연구목적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표본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며, 그 대상은 연구가 주목하는 전형적 현상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이다 (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젊은 연령대보다는 전쟁 세대의 기억

(1) 개방형 질문지의 구성

질문지는 총 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레드 콤플렉스에 대한 직접적 언급 없이 공산당과 공산주의, 현재의 남북관계, 안보에 대한 생각 등을 간접적으로 묻도록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산당과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한반도에 전쟁이 날 확률이 어느 정도이며, 전쟁이 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남한 내에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본인의 사상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아는 사람 중에 친북세력으로 판명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 과거 국가안보를 위협했다는 죄목으로 고초를 겪은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빨갱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각 문항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1, 2, 3, 8번 문항은 레드 콤플렉스의 인지적 및 정서적 측면을, 4, 5, 6, 7번 문항은

을 간직하고 있는 고연령의 사람들이 레드 콤플렉스와 관련된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일반인들은 비교적 고연령 집단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직업군, 북한 및 공산주의에 대한 경험적 측면에서 편향적이지 않은 평범한 생활인들이었다.

레드 콤플렉스의 행동화 측면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본래 근거이론 연구들에서는 피험자들의 자유기술적인 반응을 추출하기 위해 비구조적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해야 하지만, 연구 주제의 특성상 면접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개방형 질문으로 대체하였다.

(2) 분석방법 및 결과

분석은 연구자들이 자료에서 개념의 범주와 성격을 추출하여 그것을 3인의 평정자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2명 이상의 평정자가 추출된 개념의 범주와 성격을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범주화의 타당성을 인정받도록 하였다. 심리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석사과정 학생들이 평정자로 연구자들이 추출한 개념을 평가하였다.¹⁰⁾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레드 콤플렉스가 인지, 정서 및 행동적 측면의 복합적 성격을 가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첫째, 인지적인 부분과 행동적인 부분의 불일치의 가능성, 둘째, 레드 콤플렉스가 발현되는 대상차원이 다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우선, 인지적인 부분과 행동적인 부분의 불일치란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과 행동화되어 나타나는 행동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응답에서 사람들은 공산주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사상이고, 자신의 사상은 자유민주주의이며,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국가안보에 저해된다고 판단하면 개인의 자유는 침

10) 질적 자료의 분석은 스트라우스와 커빈(Strauss & Corbin, 1998)의 근거이론의 자료 분석 단계를 따랐다.

해될 수 있고, 사상에 문제가 있는 이들은 국가요직에 등용될 수 없다고 응답하는 등, 자신의 견해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거나 그럴 의도가 있음을 내포하는 응답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평상시에는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안과 어떠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자신이 취하게 될 행동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레드 콤플렉스를 발현하게 되는 대상차원이 단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자신이 동의하는 사실과 내가 실제로 가진 생각은 다를 수 있고, 그것이 북한 정권인지, 북한 주민인지, 혹은 친북세력으로 생각되는 사람인지에 따라서도 각각 다른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 연구자들은 분석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응답의 경향성이 레드 콤플렉스의 중요한 속성이라 판단하여, 레드 콤플렉스가 나타나는 대상차원을 일반차원, 대상차원, 개인차원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차원이란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차원을 의미하며, 대상차원은 북한 정권, 북한 주민, 친북세력 등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드러나는 차원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차원은 특정한 상황, 즉 북한과 북한 사람, 공산주의 등에 대한 사안이 자신과 관련된 경우일 때 나타나는 개인의 견해와 느낌과 행동을 의미한다. 레드 콤플렉스는 이러한 차원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3) 레드 콤플렉스의 구조

따라서 기존 연구 결과와 개방형 질문지의 응답을 분석하여 추출한 레드 콤플렉스는 인지, 정서, 행동의 한 축과 일반, 대상, 개인의 다른 한 축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개념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인지/정서/행동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태도차원’의 3요소이며, 개인/대

<그림 1> 레드 콤플렉스의 구성요소¹¹⁾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행동(의도)적 요소
일반 차원	· 반공 이데올로기 · 안보 지상주의 등	· 전쟁에 대한 공포 · 상실에 대한 두려움 등	· 사상 수용 정도
대상 차원	· 북한 및 안보위협 세력의 인지 등	· 북한 및 안보위협 세력에 대한 적개심 등	· 대상에 대한 수용성 · 탄압용인 및 동조
개인 차원	· 지각하는 안보위협 정도	· 불이익에 대한 공포	· 내재화된 자기검열

상/일반 차원은 그러한 태도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도에 따른 구분으로, 일반인들의 응답에서 나타나는 패턴에서 유추할 수 있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일반차원에서 개인차원에서의 전이와, 인지/정서적 요소에서 행동(의도)적 요소로의 발전가능성이다. 남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반공의식과 안보의식, 전쟁에 대한 공포 등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이상 개인적으로 내면화/행동화되면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심리적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바로 레드 콤플렉스의 이러한 측면일 것이다.

2) 레드 콤플렉스의 특성 파악: 실증적 접근

(1) 레드 콤플렉스 척도의 제작

공산주의 및 북한에 대한 태도 등을 묻는 개방형 질문지의 응답에

11) 각 차원의 세부사항은 개방형 질문지의 응답들을 범주화한 것임.

대한 질적인 분석을 통해 레드 콤플렉스는 인지/정서/행동 및 일반/대상/개인 차원 등 여러 차원에서 나타나는 다원적인 심리의 복잡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보다 실증적인 방식으로 레드 콤플렉스와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태도를 검증하기 위해 앞서 개념화한 레드 콤플렉스의 척도를 제작하였다. 우선, 레드 콤플렉스를 구성하는 것으로 파악된 인지, 정서, 행동적 차원과 일반, 대상, 개인 차원을 교차하여 만들어낸 9개의 차원의 속성에 해당하는 예비문항 78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3명의 평정자로 하여금 문항들이 생각한 차원에 해당하는지 평가하게 하여, 최종적으로 69개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2) 설문조사

서울·경기, 충청, 강원, 전라, 경상 등 전국 각지의 대학생과 직장인 354명(평균연령 32.0세)에게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에서는 레드 콤플렉스 문항 69개(Likert 5점 척도로 측정)와 함께 북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척도 11문항(Likert 5점 척도로 측정)을 포함하여, 레드 콤플렉스와의 관계를 알아보려 하였다.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공산주의, 공산주의자 및 북한에 대한 태도가 적대적인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거리감 척도는 김혜숙(1988)이 변안한 에드워드(Edwards, 1957)의 척도를 사용했다(Cronbach's $\alpha=.86$). 원래의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낮은 것으로 채점되도록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큰 것으로 역채점해 사용했다.

<표 1>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사례수	백분율(%)
성별	남	195	55.2
	여	158	44.8
지역	서울·경기	53	15.0
	충청	29	8.2
	강원	90	25.4
	전라	65	18.4
	경상	117	33.1
연령	20대	217	61.3
	30대	41	11.6
	40대	55	15.5
	50대 이상	41	11.6
수입	월 200 이하	100	29.0
	200-300	99	28.7
	300-400	78	22.6
	400 이상	68	19.7
정치성향	진보	89	25.3
	중도	178	50.6
	보수	85	24.1

(3) 결과

자료의 분석은 SPSS 12.0을 이용, 분석하였다. 사용한 분석방법은 조사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 적합한 레드 콤플렉스 문항과 요인구조를 추출하기 위한 요인분석,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레드 콤플렉스의 하위차원의 평균과 상관계수를 비교하기 위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및 상관분석 등이다.

① 요인분석

레드 콤플렉스의 각 차원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첫째, 해당 하위척도 내에서 문항-총점 상관인 .30 이상인 문항만을 선정하였다. 둘째, 모든 문항들에 대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에 의한 사각 회전(Direct Oblimin 방식)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이론적으로 예상된 차원이면서 .30 이상의 구조계수(factor structure loading)를 갖는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한 문항이 동시에 두 요인에 부하한 경우는 구조계수가 더 큰 문항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인지요소에 12문항(일반차원 4, 대상차원 4, 개인차원 4), 정서요소에 12문항(일반차원 4, 대상차원 4, 개인차원 4), 행동요소에 11문항(일반차원 4, 대상차원 3, 개인차원 4) 등 총 35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표 2>, <표 3>, <표 4>에 각각의 문항과 요인구조, 구조계수¹²⁾ 등을 제시하였다.

<표 2> 인지요소 문항의 구조계수 행렬

문항	M(SD)	요인 1 일반	요인 2 대상	요인 3 개인
1. 국가의 안보는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4.09 (1.01)	.548		
2. 시대가 변화해도 공산주의는 금지해야 한다.	3.78 (1.22)	.801		.333
13. 나는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3.86 (1.21)	.699		.307
20. 공산/사회주의의 이점이라고는 전혀 없다.	2.80 (1.17)	.456	.419	
5. 남한과 북한은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이다(R).	2.11 (.970)		.529	
7. 북한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R).	1.73 (.967)		.636	

12) 구조계수(요인부하량)는 .30 이상의 값을 제시하였다.

31. 북한사람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	2.24 (1.10)		.639	
67. 다양한 시각의 목소리들을 인정해야 한다(R).	2.13 (.969)		.466	
3. 한국의 안보는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	3.30 (1.01)			.588
15.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 생각한다.	3.11 (1.01)			.769
16. 한국은 지금 국가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	3.24 (1.12)			.470
38.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확률은 낮다(R).	3.13 (1.06)			.458
고유치(eigen value)		1.959	1.675	1.861
설명변량(%)		21.639	10.465	6.721
Cronbach's α		.72	.65	.66
요인평균(표준편차)		3.63(.86)	2.06(.71)	3.20(.74)

<표 3> 정서요소 문항의 구조계수행렬

문항	M(SD)	요인 1 개인	요인 2 대상	요인 3 일반
12. 북한관련 혹은 사상문제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한 적이 있다.	2.33 (1.21)	.519		
41. 나는 북한 또는 용공세력과 관련 있다는 의심을 받을까 겁이 난다.	2.19 (1.15)	.867		
42. 나는 주위에 친북세력인 듯한 사람이 없는지 신경이 쓰인다.	2.19 (1.15)	.734		
45.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다.	2.26 (1.12)	.595		
26. 북한 여행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다(R).	2.27 (.999)		.583	
39.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민간단체가 있어 다행이다(R).	2.25 (.912)		.694	
46. 통일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매우 기쁠 것이다(R).	2.45 (.972)		.497	
56. 정부가 운영하는 탈북자 보호시설이 있어서 좋다(R).	2.30 (.905)		.763	
22. 공산주의/사회주의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나쁘다.	3.07 (1.21)			.611
23. 나라의 안보에 위협이 닥칠까봐 불안하다.	3.28 (.994)			.640

27.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것 같아 불안하다.	2.98 (1.11)			.608
34. 북한이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	3.35 (1.12)			.424
고유치(eigen value)		2.178	1.877	1.521
설명변량(%)		21.509	11.298	9.404
Cronbach's α		.77	.72	.65
요인 평균(표준편차)		2.23(.89)	2.32(.70)	3.17(.79)

<표 4> 행동요소 문항의 구조계수행렬

문 항	M(SD)	요인 1 대상	요인 2 개인	요인 3 일반
50. 자유민주주의를 제외한 어떤 사상도 용납 되어서는 안 된다.	2.54 (1.19)	.666		
54. 북한을 지원하는 어떠한 조치도 있어서는 안 된다.	2.36 (1.11)	.810		
55. 나는 북한 사람들과 잘 지낼 생각이 없다.	2.23 (1.13)	.728		
47. 사상이 불온한 사람은 국가 요직에 등용 되어서는 안 된다.	3.67 (1.09)		.641	
61. 안보를 저해하는 세력은 국가가 나서서 제지해야 한다.	3.58 (1.01)		.688	
64. 나는 친공산주의나 친북적인 정보를 접할 생각이 없다.	3.36 (1.15)		.498	.380
66. 나는 친공산/친북적 발언을 절대 하지 않 는다.	3.41 (1.16)		.490	
48.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좋은 점은 받아들 어야 한다(R).	2.43 (1.06)		.404	.465
53.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인의 자유는 침해 될 수 없다(R).	2.47 (1.12)			.449
58. 북한에 이로워 보이는 정책이라고 해도 무 조건 반대할 이유는 없다(R).	2.55 (.948)			.515
60. 사상을 이유로 국가가 개인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R).	2.71 (1.13)			.566
고유치(eigen value)		2.159	1.545	1.401
설명변량(%)		22.552	10.174	6.225
Cronbach's α		.77	.66	.57
요인 평균(표준편차)		2.38(.95)	3.51(.77)	2.54(.70)

<표 2>, <표 3>,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지요소 문항들에 있어서 일반차원은 공산주의 및 안보에 관한 문항들로, 대상차원은 북한과 북한 사람 등과 관련한 문항들로, 개인차원은 안보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관련한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정서요소에서는 일반차원 문항은 공산주의, 북한, 안보에 대한 것들이, 대상차원은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항들이, 개인차원은 내재화된 개인적인 정서들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선택되었다. 마지막으로 행동요소에서는 일반차원은 공산주의나 사상에 대한 수용 정도를 묻는 문항들이, 대상차원은 북한 사람과 북한에 대한 문항들이, 개인차원에서는 자기검열 및 타인에 대한 탄압용인 등의 내재화된 행동과 관련한 문항들이 각각 선택되었다. 선정된 문항들은 전반적으로 명확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각자가 속한 차원의 속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한편 레드 콤플렉스 각 하위차원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6에서 .7대 정도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연령 등의 변인에 따라 북한 및 공산주의 등에 대한 태도차원을 다르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의 결과에서도 뒷받침되지만, 전쟁의 직·간접적 경험세대와 이후의 소위 386세대 그리고 반공교육조차 받지 않은 세대의 공산주의 및 북한에 대한 태도는 질적으로 다른 성격일 가능성이 크다.

② 인구통계적 변인과의 관계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레드 콤플렉스의 발현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과 연령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가) 성별

성별에 따른 레드 콤플렉스 하위차원¹³⁾의 차이는 <표 5>와 같다.

<표 5> 성별에 따른 레드 콤플렉스 하위차원의 차이

	남자(N=195)		여자(N=158)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인지개인	3.10	.79	3.33	.63	9.240**
행동개인	3.60	.79	3.40	.74	5.421*

* p<.05, *** p<.01

9개의 차원 중, 인지의 개인차원과 행동의 개인차원에서 각각 성차가 나타났다. 인지의 개인차원에서는 여성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F=9.240, p<.01), 행동의 개인차원에서는 남성의 점수가 더 높았다 (F=5.421, p<.05). 이러한 결과는, 기타의 차원, 즉 정서요소나 인지 및 행동요소의 일반차원에서는 성차에 따른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인지적이고 개인적인 측면, 즉 현재의 국가 안보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행동적이고 개인적인 측면, 즉 내재화된 자기검열이나 타인에 대한 탄압용인 등의 측면에서는 남성이 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연령

연령대에 따른 레드 콤플렉스 하위차원에 대한 차이는 <표 6>과 같다.

13) 이후 분석에서 사용된 레드 콤플렉스 하위차원의 점수는 구조계수행렬에서 구분된 하위차원 문항들의 평균을 의미한다.

<표 6> 연령대에 따른 레드 콤플렉스의 하위차원에 대한 차이분석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평균	표준편차	F
사례수	216	41	55	41			
인지일반	3.44a (.85)	3.74ab (.78)	3.83b (.72)	4.28c (.72)	3.63	.86	14.075***
정서일반	3.04a (.76)	3.45b (.74)	3.19 (.67)	3.52b (.99)	3.17	.79	6.416***
행동일반	2.46 (.68)	2.76 (.68)	2.55 (.68)	2.75 (.78)	2.54	.70	3.691*
행동대상	2.29a (.93)	2.49ab (.87)	2.28a (.89)	2.85b (1.07)	2.38	.95	3.691**
행동개인	3.36a (.70)	3.77b (.66)	3.52a (.88)	4.01b (.85)	3.51	.77	10.622***

* p<.05, ** p<.01, *** p<.001, a, b, c는 scheffe 사후검증 결과.

<표 6>에 따르면, 9개의 레드 콤플렉스의 하위차원 중, 인지, 정서, 행동의 일반차원과 행동의 대상 및 개인차원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태도의 대상적, 개인적 차원보다는 일반적 차원에서, 또한 인지, 정서적 차원보다는 행동의 차원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이가 나타난 모든 차원에서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차원의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50대 이상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는 모든 차원에서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가장 강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가지 특이한 결과는 인지의 일반차원을 제외하고는 30대보다 40대의 점수가 높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향은 현 40대가 과거 '386세대'라는 점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는 20대의 보수화 성향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차원과 함께 행동요소적 측면에서 연령대의 차이가 나타났다는 사실에서, 인지, 정서적 요소보다는 행동적 측면이 레드 콤플렉스의 성격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③ 하위차원 간 차이분석

전술한 바와 같이, 레드 콤플렉스의 주된 두 개념축(인지/정서/행동요소)의 축, 일반/대상/개인차원의 축)을 각각 고려할 경우, 그 하위차원의 차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 실제로, 실증적 방식으로 측정된 레드 콤플렉스가 두 차원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하위차원의 평균값을 차이분석(repeated measure)하고 그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하였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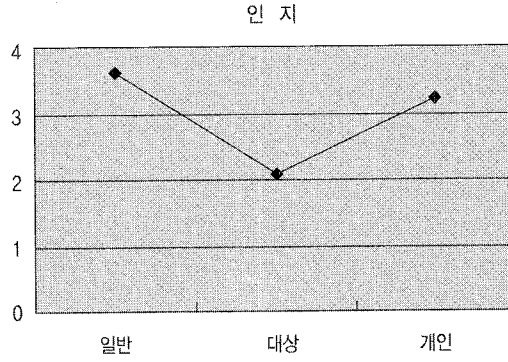
가) 인지/정서/행동 축을 중심으로 본 일반/대상/개인 차원의 차이

가. 인지적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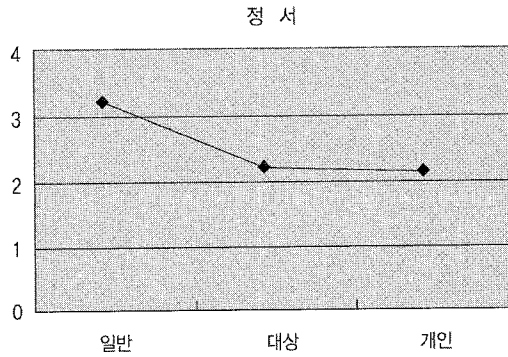
<그림 2>에 따르면 일반차원과 개인차원에 비해 대상차원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다($F=540.267, p<.001$). 즉 일반적으로 지각하는 안보상황과 공산주의에 대한 태도보다 대상 즉, 북한과 북한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덜 적대적으로 인지한다고 할 수 있다.

14) 세 하위차원에 대한 차이분석은 반복측정(repeated measure)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각 차원 점수의 비교는 일표본 t 검정으로 실시했다. 즉, '대상' 차원과 '일반', '개인' 차원의 값을 비교하고, '일반' 차원과 '개인' 차원의 값을 비교하는 식으로 여러 차례의 사후적인 분석이 실시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복잡한 통계적 절차의 기술을 생략하고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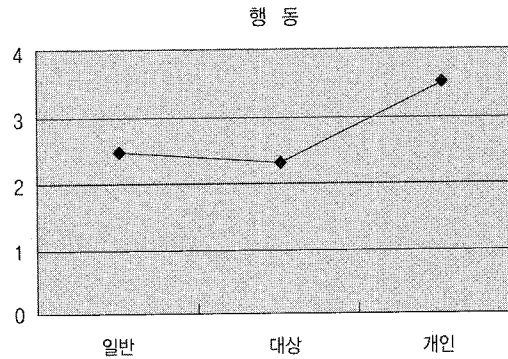
<그림 2> 인지요소에서의 일반/대상/개인차원의 차이



<그림 3> 정서요소에서의 일반/대상/개인차원의 차이



<그림 4> 행동요소에서의 일반/대상/개인차원의 차이



ㄴ. 정서적 요소

<그림 3>에 따르면 일반차원의 점수가 대상과 개인차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F=183.638, p<.001$). 즉, 일반적으로 느끼는 공산주의 및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전쟁의 위협 등이 북한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나 내재화된 자기검열로 인한 불안보다 크다는 것이다.

ㄷ. 행동적 요소

<그림 4>에 따르면 개인차원의 점수가 일반이나 대상차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F=267.794, p<.001$). 즉, 공산주의나 사상문제, 북한 사람 등에 관련한 사안보다는 내재화된 자기검열이나 타인에 대한 탄압 등이 더 행동화되기 쉽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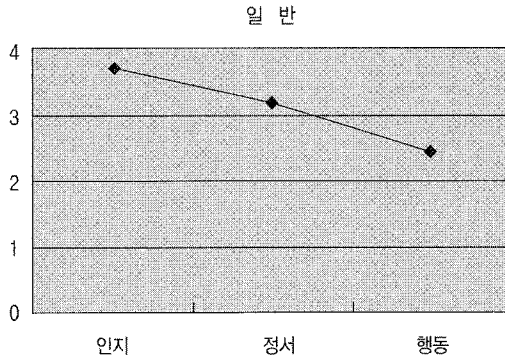
인지/정서/행동 축에서 나타난 응답 패턴을 요약하면, 일반적 차원에서는 인지 및 정서적으로는 공산주의 및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행동적 차원에서는 비교적 그 반응의 수준이 낮은 반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인지적으로는 적대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나 대상적 차원에서는 그 강도가 낮았으나, 행동적으로는 다시 적대적 반응양식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서적 차원은 일반, 대상, 개인의 모든 차원에서 비교적 약한 반응(비적대적)을 보였다.

나) 일반/대상/개인 차원을 축을 중심으로 본 인지/정서/행동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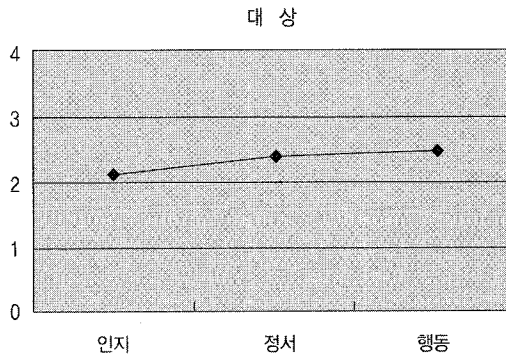
ㄱ. 일반 차원

<그림 5>에 따르면, 일반적 차원에서 인지, 정서, 행동요소의 점수는 인지>정서>행동의 순서로 나타났다($F=253.905, p<.001$). 즉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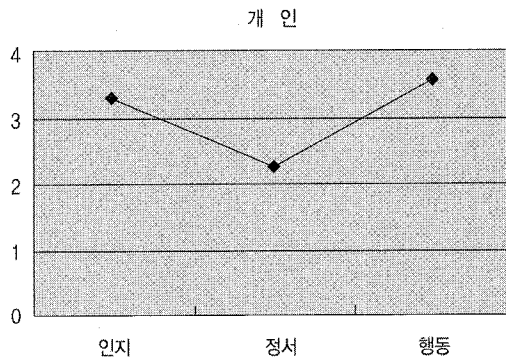
<그림 5> 일반차원에서의 인지/정서/행동요소의 차이



<그림 6> 대상차원에서의 인지/정서/행동요소의 차이



<그림 7> 개인차원에서의 인지/정서/행동요소의 차이



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인지적으로는 거부감을 강하게 갖고 있으나 정서, 행동적 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ㄴ. 대상차원

<그림 6>에 따르면, 인지, 정서 및 행동요소의 점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는 인지적 요소의 점수가 정서, 행동요소의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F=33.658$, $p<.001$) 나타나지만, 실제적으로 .3 정도의 차이는 기타 차원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비하면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에 근거하여, 대상차원에 있어서는 정서 및 행동차원에 비해 인지적인 측면(북한과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서 상대적으로 더 약한 태도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ㄷ. 개인차원

<그림 7>에 따르면, 인지요소와 행동요소에 비해 정서요소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F=266.925$, $p<.001$). 즉, 내재화된 자기검열 및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안보상황에 대한 개인적 인식과 내재화된 행동적 측면이 보다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대상/개인 축에서 나타난 응답 패턴을 요약하면, 인지차원에서는 일반과 개인차원은 높은 적대적 반응을 보이는 반면 대상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았다. 정서차원에서는 일반적인 적대감이 높았을 뿐, 대상과 개인적 차원의 적대감은 낮은 수준이었고, 행동차원에서는 일반 및 대상차원은 낮은 행동화 반응을 보였으나 개인

적 수준에서는 높은 반응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④ 하위차원 및 사회적 거리감과의 상관

레드 콤플렉스를 구성하는 여러 차원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레드 콤플렉스의 하위차원들은 인지의 일반차원과 정서의 대상차원, 정서의 대상차원과 행동의 개인차원, 정서의 개인차원과 행동의 일반, 개인차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레드 콤플렉스 하위차원 및 사회적 거리감과의 상관(pearson's r)

	인지일반	인지대상	인지개인	정서일반	정서대상	정서개인	행동일반	행동대상	행동개인
인지일반	1								
인지대상	.234***	1							
인지개인	.361***	.231***	1						
정서일반	.550***	.334***	.517***	1					
정서대상	.007	.557***	.195***	.149***	1				
정서개인	.138***	.396***	.127*	.213***	.201***	1			
행동일반	.206***	.425***	.175***	.203***	.371***	.058	1		
행동대상	.365***	.643***	.228***	.335***	.377***	.545***	.319***	1	
행동개인	.522***	.157***	.216***	.486***	.006	-.008	.231***	.259***	1
거리감	.212***	.581***	.207***	.279***	.559***	.287***	.348***	.465***	.236***

*p<.05, ***p<.001,

특히 레드 콤플렉스 개념의 내용적 타당화를 위해 살펴본 사회적 거리감과의 관계는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각 차원의 점수가 높을수록 북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을 의미하며, 레드 콤플렉스의 하위차원들이 북한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특히 대상차원과의 상관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거리감이 대상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패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각 대상차원(인지, 정서, 행동)의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심리학에서 북한과 관련한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이나 그들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한 것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남북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교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심리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주제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일차적인 이유일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연구의 초점이 주로 북한 사람들이나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어 많은 의미 있는 결과들이 산출되어 있으나, 또 다른 의미 있는 주제, 즉 남북한의 심리적 통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된 바 없다. 심리적 통합의 중요성에 대한 논문들은 여러 편 발표된 바 있지만, 그것에 대해 실증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는 없었다.

본 연구는 남북한의 심리적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중에서

도 남한 사람들에게 은연중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레드 콤플렉스’라는 심리를 다룸으로써 남북의 심리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이고, 또 그러한 저해요소가 언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일차적 의의는 개인적 적응 혹은 북한사람들에 대한 일차원적 태도 등 심리학에서 다루어왔던 한정된 주제를 확대하고 그것을 실증적인 방법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이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와 개방형 질문지에 대한 질적 분석 등을 통해 밝혀진 레드 콤플렉스라는 심리현상은 ‘콤플렉스’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매우 복잡적이고 다차원적인 성격을 갖는다. 즉, 레드 콤플렉스는 인지, 정서, 행동 등 태도의 세 차원에 걸쳐 발생하며, 그 대상은 일반적인 차원에서부터 구체적 대상,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세분화되어 나타난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척도를 개발하여 문항들을 분석한 결과, 레드 콤플렉스의 다원성 및 다차원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추상적인 선에서 짐작되고 있던 레드 콤플렉스의 복잡적 성격이 실제로 다양한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레드 콤플렉스가 다른 심리적 변인들 및 남북관계의 중요 이슈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레드 콤플렉스의 각 차원을 비교한 결과, 일부 차원 사이에서의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인지, 정서, 행동의 축으로 살펴 보았을 때, 인지요소에서는 일반, 개인차원에 비해 대상차원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정서요소에서는 대상, 개인차원에 비해 일반차원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행동요소에서는 일반, 대상차원에 비

해 개인차원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① 인지적으로 ‘대상(북한이나 북한 사람 자체)’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② 정서적으로도 ‘일반(전쟁위험성이나 사상으로서의 공산주의)’적인 것에 거부감이 있을 뿐이지만, ③ 행동적으로는 가장 ‘개인적’인 수준(자기검열, 탄압 용인 등)에서 행동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북한이나 공산주의,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인지나 정서는 어느 정도 수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직접적인 행동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일반, 대상, 개인 차원의 축으로 살펴보면, 일반차원에서는 인지요인의 점수가 가장 높고, 정서, 행동요인의 순서로 점차 낮아졌고, 대상차원에서는 인지, 정서, 행동차원의 점수가 낮고 거의 서로 차이가 나지 않은 반면, 개인차원에서는 정서요인을 제외한 인지와 행동차원의 점수는 높았다. 즉, 일반적인 사항(공산주의, 북한 등에 대한 일반적 태도)과 대상적(북한 사람, 북한이탈주민, 사상이 다른 사람) 차원에서는 행동화되는 측면이 크지 않은 반면, 개인적 차원(실제로 자신이 취하는 태도와 행동)에서는 높은 비율로 행동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축(인지/정서/행동, 일반/대상/개인)에서의 차원 간 차이는 레드 콤플렉스의 복합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며, 특히 레드 콤플렉스의 실질적인 영향이 ‘행동적 요소’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즉, 단순히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견해나 특정 대상에 대한 적개심 자체보다 행동화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경향이 일반적이고 또 항상 나타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북한과 북한 사람들에 대한, 혹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상충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레드 콤플렉스의 특성들이 발현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와 상황에 대한 탐색과 논의는 후속 연구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변인, 특히 연령과의 관계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실은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레드 콤플렉스 점수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직접 전쟁을 경험하거나 반공교육을 받은 세대와 그 이후 세대 사이에 북한과 공산주의 등에 대한 견해, 정서, 행동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뜻하며, 연령대에 따라 레드 콤플렉스를 지각하는 정도와 차원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특성은 실증연구 이전에 충분히 유추 가능했던 것으로 본 연구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복합적인 일면들은 북한과 관련한 특정 사안이나 대북관련 정책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 연령별 차이를 유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의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는 앞서서도 밝힌 바 있지만 본 연구에서 선택한 ‘레드 콤플렉스’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의 모호성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레드 콤플렉스’란 일반적으로 정치, 언론에서 일컬어지는 의미가 아니라, 남한 주민이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갖는 태도차원의 복합성(혹은 차원 간의 불일치)을 뜻하는 다분히 심리학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점은 그러한 태도차원의 불일치가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후속연구가 진행되면 보다 분명해질 것이라 생각된다.

두 번째는 실증적 연구로서 다양한 지역과 연령층을 포괄하려 노력했으나 지역별 사례의 분포가 고르지 않고 4, 50대 이상 연령의 비율이 적다는 등,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최대한 다양한 연령층을 포괄하려다 보니 각 연령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되기 어려

운 점이 있었다는 것도 후속 연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세 번째는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이 아직 교차타당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탐색적인 문항이란 점이다. 문항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표본에 대한 타당화가 요구된다. 타당화 작업을 거쳐 확정된 문항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된다면 레드 콤플렉스라는 심리의 발현과 작용을 구체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 및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남북 및 남남갈등 등 심리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이해하고 제거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접수: 10월 16일 / ■ 채택: 11월 30일

참고문헌

- 강준만 외, 『레드 콤플렉스』(서울: 삼인, 1997).
- 권혁범,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 『통일연구』, 제2권 2호(1998), 7~42쪽.
- 김동춘, 『한국전쟁과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서울: 풀빛, 1992).
- 김혜숙, “지역 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 세대 간 전이가 존재하는가,”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엄 논문집』(1998).
- 도방주, “6.15 남북, 북남 공동성명 이후 자기검열에 대한 신학적 연구,”(성공회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오수성, 『적색공포의 본질과 심리적 작용: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5), 81~91쪽.
- _____, “통일한국과 심리적 화합,” 『심리과학』, 제10권 1호(2001), 1~17쪽.
- 이장호, “남북통일의 문화심리적 장애요인,”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학술세미나』 논문집(1992). 125~133쪽.
- 이종한·금명자·채정민·이영이, 『오늘의 마음으로 읽는 내일의 통일: 통일 지지, 반대, 무관심의 스펙트럼』(서울: 통일교육원, 2004).
- 정해구, “통일·대북의식의 변화와 ‘레드 콤플렉스,’” 『역사비평』, 제3호(1997), 86~98쪽.
- 진중권, 『빨간 바이러스』(서울: 아웃사이더, 2004).
- 차재호, “통일에 있어서 심리적 통합의 전망과 과제,”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엄 논문집』(2000).
- 채정민·이종한,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남북한 문화이질성: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0권 2호(2004), 79~101쪽.
- 한민·이지나·황태호·채정민, “북한에 대한 이중적 이미지와 통일인식,”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논문초록집(2005).
- Edwards, A. L., *Technique of Attitude Scale Construction*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57).

The “Red Complex” as an Obstacle to Psychological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Conceptualization and Empirical Analyses

Han, Min · Bae, Joon-Sung(Korea Univ., Psych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ceptualize the “red complex”, a culturally constructed concept that is related to multiple attitudes on communism, communists and North Korea. According to past research, this complex could exert a negative influence not only upon the relationship of South and North Korea, but also upon psychological integration of the two countries’ people.

The structure of the red complex was deduced from the results of past research and qualitative data. The complex has nine lower dimensions: (cognitive, emotion, behavior) × (general, objective, individual). Sixty-nine items were formulated to measure these nine concepts and tested on 354 participants(195 men, 158 women).

Several meaningful results were found. First, 35 items(12 cognitive, 12 emotional, 11 behavioral) measuring each lower concept of the red complex were selected by factor analysis. Second, by comparing the

scores of the nine lower concepts,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he red complex were made more concrete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ird, effects of demographic variables were found in some dimensions(e.g. gender, age). Fourth,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red complex and a sense of social distance from North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is complex is an important concept in understanding problems related to communism, North Korea, etc. To answer quest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and unification, the concept of the red complex should be elaborated by further studies.

Key words: Red complex,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psychological integration, conceptualization, empirical analyses

한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2004). 현재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박사 수료연구생으로 재학 중이다.

배준성

강원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에 재학 중이다.